

# “8년 혁신교육 결실 수확할 때” 청렴도 회복·진보계 화합 시급

##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당선 의미와 과제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논란에도 광주시민은 장휘국 후보에게 광주교육 4년을 다시 맡겼다. 민선 1, 2기 광주시교육감을 지낸 장휘국 당선인은 14일 새벽까지 광주 특유의 3선 거부 정서와 지난 8년간의 광주교육을 비판하며 맹주격해온 이정선 후보를 접전 끝에 누르고 3선 고지에 올랐다.

장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다시 참교육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 오늘 승리는 참교육의 승리이며 멈춤 없는 교육개혁을 바라는 광주 시민들의 승리다. 성원과 지지는 우리 아이들, 학부모, 교사들 모두가 행복한 학교로 연결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전교조 지부장 출신인 장 당선인 앞에는 적지 않은 과제가 놓여있다. 우선 갈라진 진보세력의 분열을 봉합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 장 당선인의 초선·재선을 견인했던 진보진영에서 광주의 대표적 사회참여 지식인으로 분류되는 전남대 교수 출신의 최영태 후보에게 적잖은 지지를 보냈다는 점에서도. 최 후보가 1~2개월이라는 짧은 준비기간 26.21%(17만8330표)라는 높은 득표율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지역 진보진영이 둘로 갈라져 싸웠기 때문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도 하다.

선거기간 쟁점이 됐던 ‘학생 실력저하, 교육청 청렴도 최하위 오명’은 학부모 걱정을 덜고 광주교육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냉정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선거에서 이정선 후보에게 향한 유권자 24만3574명(35.80%), 최영태 후보를 택한 26.21%의 유권자 등 42만1904명(62.01%)의 반(反) 장휘국 성향 유권자 표시에는 학력신장 등 자녀 장래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 깃들었다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쟁자였던 이 후보와 최 후보가 줄곧 실력광주 회복과 청렴도 향상, 교육계 분열 반대를 외치며 판을 흔들었다.

장 당선인도 이날 오전 시교육청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선거기간 초등학교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성적표를 받아보며 자녀 실력을 점검하고 싶어하신다는 것을 느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장 당선인이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표심을 나침반 삼아 지난 8년간 추진해온 교육정책에 변화를 줄지 여부에 관심을 두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하지만 장 당선인이 당선 소감에서 “지난 8년, 광주교육에 혁신교육의 나무를 심었다. 이제 수확의 시기다.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과 소질을 살려 미래인재가 될 수 있도록



14일 새벽 장휘국(왼쪽) 광주시교육감 당선인이 당선 확정기자 부인 김덕희 여사와 환호하고 있다. <장휘국 후보 캠프 제공>

모든 정성을 쏟겠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교육개혁을 완수하고 평화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교육을 펼치라는 시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르겠다”고 강조한 점에 미뤄 큰 틀의 정책변화 없이 광주교육을 이끌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다만 장 당선인과 함께 전교조 위원장 출신의 장석웅 후보가 전남도교육감에 당선되면서 두 명의 장 교육감이 대입제도 개선이나 통일 교육, 남북학생 교류 사업 등에 한 목소리를 내며 국가 교육정책 전반에 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 “광주교육이 창의력과 봉사활동, 학생 개인의 개성 존중 등에 초점을 맞춰왔는데 실제 우리 아이들 앞에는 이와는 동떨어진 입시제도, 그리고 대학 간판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가 결정되는 사회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정부 당국에 적극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온다.

광주 교육은 학생을 성적으로 줄 세우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는 데, 대학 입시는 성적순으로 결정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좁히는 데 장 당선인이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10명 중 6명 물갈이

## 광주시의원 22명 중 3명·전남도의원 57명 중 14명 생존

6·13 지방선거 결과 민선 6기 광주·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63%가 물갈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3선 연임 제한에 묶여 출마를 하지 못한 현역 단체장과 옛 국민의당의 분당으로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옷을 입고 출마한 현직의 낙마가 많았던 탓이다. 또한 전남 지역에서는 무소속 돌풍과 야당의 선전 속에서 현역들이 고배를 마시는 경우도 있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지방선거 개표 결과 광주·전남지역 민선 6기 27명의 기초단체장 중 12명이 제7기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이나 3선

이상에 도전했으나 4명이 낙선했다. 낙마한 후보는 김성환 광주 동구청장,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박홍률 목포시장, 고길호 전남 신안군수 후보다.

이로써 민선 6기 27명의 시장, 군수, 구청장 중 여러 이유로 선거에 나서지 못한 13명 등 총 17명(63%)이 물갈이 된 셈이다.

앞서 여수 주철현, 순천 조충훈, 장흥 김성, 강진 강진원 등 단체장 4명이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고 ‘3선 연임’ 제한으로 광주 북구청장, 구례군수, 고흥군수 3자리도 자동 물갈이 됐다.

무안군수, 보성군수, 해남군수 등 3곳은

각종 비리에 연루돼 현역 단체장이 일찌감치 낙마했고 광주 남구청장과 광산구청장 등 2곳은 현역이 광주시장 출마를 위해 자리를 던졌다. 함평군수는 ‘미투의혹’이 불거져 불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도 대폭 새 얼굴들이 의석을 차지했다. 광주시의회의 경우 지난 7대 22명의 의원 중 단 3명만이 8대 의회에 입성해 생존율은 13%에 불과했다.

전남도의회도 57명의 의원 중 이번 선거를 통해 24%가량인 14명만이 다시 의석에 앉게 됐다. /오광록 기자 kroh@



우리도 한 표 행사했어요 6·13청소년도투표 광주운동본부가 지난 13일 광주시 동구 청소년센터(옛 광주학생회관) 앞에서 투표권이 없는 청소년들의 참정권 실현을 촉구하며 광주시장과 시교육감에 대한 모의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전국시·도교육감협회장 지내

## 장휘국은 누구

장휘국 당선인은 평교사 출신으로 민선 1, 2기 광주시교육감을 지냈다.

출생지는 충북 단양. 경찰 공무원인 부친을 따라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유년시절을 보냈다. 광주교대 졸업 후 1970년 초등학교사가 됐고 1987년 교육민주화운동에 뛰어들었다.

전교조 전남지부 사무국장을 맡았고, 전교조 결성 등 교육운동을 하다 19년간 해직교사 신분으로 지내는 아픔을 겪었다. 1994년 중학교 교사로 복직돼 전교조 광주지부장을 지냈고 2003년에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됐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광주시 교육위원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지난 8년간 광주시교육감을 지내며 광주교육의 일대 변화를 불러왔다. 촘촘한 학교를 만들었고,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동시에 제정했다.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도입해 전국으로 확산시켰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졌던 광주 학생들의 학력저하 논란에서 보듯, 상당수 학부모들은 장 교육감 체제의 광주시교육청과 중종교에서 학업성취도 향상에는 관심이 많지 않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직선 2기 때는 전국시·도교육감협회장으로도 활동했다. 박근혜 정부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에 맞서 지방교육재정을 지켜내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에 앞장서며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지방선거, 더 견고해진 ‘여성 유리천장’

## 전체 당선자 비율 3.9% 하락 광역·기초단체장·교육감 0명

6·13 지방선거 광주·전남지역 여성 출마자 207명 가운데 86명(41.5%)이 당선됐다.

152명이 출사표를 던져 당선율 45.4%(69명)를 기록한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서는 여성 출마자들의 당선율이 더욱 떨어졌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선거에 여성 후보자 17명이 출마해 동구 박미정, 서구 정순애, 남구 임미란, 북구 신수정·김나운, 광산구 김광란 등

6명이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남도의원 당선인은 5명의 여성후보 가운데 여수 강정희, 영암 이보라미, 무안 이혜자 등 3명이다.

광역·기초단체장, 교육감에 도전장을 낸 여성 후보자는 영암군수 선거에 나선 민주평화당 박소영 후보가 유일하게 낙마했다.

광주에서는 구의원에 28명이 출마해 15명(53.6%),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로 36명이 나서 10명(27.8%)이 당선됐다.

전남 시·군의원에는 43명이 출마해 19명(44.2%),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로 77명이 나서 33명(42.9%)이 당선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낙선자들 선거비용 골머리 득표율 10% 안되면 보전 못해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선거비용 보전 여부를 정하는 득표율에 따라 회비가 잇달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에게 선거비용 청구금액의 전부를 보전한다. 10% 이상 15% 미만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득표율이 10% 미만이면 낙선의 아픔과 함께 선거비용마저 보전받지 못하는 또 한 번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인구수, 읍·면·동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해 산정한다. 예비후보 기간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9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전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